

이브의 몸, 부재의 변증법

—한국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

김미현

여성과 종이는 무엇이든 잘 참아내는 두 개의 하얀 물건이다.
—발자크

차이의 기호가 될 때 여성은 끔찍해진다.
—로지 브레이도티

1. 공간으로서의 몸, 기호로서의 여성

이제 확실히 문명/자연, 이성/감성, 빛/어둠, 마음/몸 등의 이분법은 그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가 전자 우위의 가치관에서 후자를 전자의 부인이나 부정, 박탈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¹⁾ 그래서 억압되었던 후자의 귀환이 일어나 둘 사이의 위계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다. 특히 마음/몸의 관계는 이성/정열, 분별력/감

1)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얇은 의지』, 나남, 1990 참조.

수성, 자아/타자, 깊이/표면, 실재/현상, 초월/내재, 시간성/공간성, 심리학/생리학, 형식/질료 사이의 대립과 위계를 포함하면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²⁾ 이런 맥락에서 기호로서의 몸은 결코 백지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사회성이나 역사성,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몸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본 몸'이 지니는 의미에 따라 그 공간의 모양이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몸이란 없다.³⁾ 때문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기호를 연구하는 기호학의 핵심이 해석과 소통에 있다면, 몸이 처한 이러한 컨텍스트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⁴⁾

그런데 여성 문학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때 여성의 몸은 '여성'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 때문에 이중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다.⁵⁾ 이원론적 입장에서 마음과 몸을 대비시킬 경우에는 주로 남성을 '마음'으로, 여성을 '몸'으로 설정한다.⁶⁾ 혹은 일원론적 입장에서 몸을 마음의 기반으로 삼는 경우에도 몸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몸만을 의미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개념에서도 확인되듯이 페니스를 가진 남성의 몸은 여성의 몸을 페니스가 없는 몸, 그래서 결핍된 몸이나 결함 있는 몸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여성 문학은 지금처럼 몸이 전성시대일 때에도 몸의 부재를 말하게 된다. 남성 중심적 시각이 여성의 몸을 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사라진 여성의 빈자리마다 남성의 욕망과 권력을 이식시키면서 여성의 몸속에서도 남성들의 몸을 투영시키려 한다. 이럴 때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알리바이로서만 존재하기에 여성의 몸은 있어도 없는

2) 정화열 저, 박현모 역,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pp. 9~10 참조.

3)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길사, 1999, p. 23 참조.

4) 미와 마사시, 서동은 역, 『몸의 철학』, 해와 달, 1993, pp. 11, 44 참조.

5) 이숙인, 「유가의 몸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철학회 엮음,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2000, p. 130 참조.

6) Elaine Hoffman Baruch, "The Female Body and the Male Mind," *Woman, Love, Power*, New York U. P., 1991 참조.

것이다. 부재가 존재의 증명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의 몸은 있어도 없는 것이 되고, 없어도 있는 것이 되는가.

2. 더러운 몸, 월경(越境)의 기호

흔히 여성들 자신도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느끼기 쉽다. 남성과는 '다른' 자신의 몸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춘기 때 자신들의 몸에서 일어난 2차 성징으로서의 월경(月經)을 감추어야 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면서 혼란을 느낀다. 물론 모든 체액(體液) 자체가 인간의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의지나 의식의 우월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격하되기도 한다. 그래서 체액은 품위 없고 시적이지 않으며 일상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기 쉽다.⁷⁾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의 정액에 비해 여성의 월경혈은 특히 금기시되거나 격하된다. 정액과 비슷한 '하얀 체액'인 모유와 비교해도 더 심하게 거부되고 은폐되어야 할 것이 바로 '빨간 체액'인 월경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나 그로 인해 질서를 교란시키고 전복시킬 때 초래되는 현상이다. 즉 남성 중심적인 체계에 위협을 초래할 때 그것을 더럽다고 간주한다.⁸⁾ 가부장적 인식에 의하면 월경기에 있는 여성과 섹스를 하면 성병을 얻는다거나, 이 시기에 임신한 아이는 불구자가 되거나 악령이 들린다는 속설도 있다.⁹⁾ 그리고 여성의 월경혈은 임신 실패의 증거물이지만 남성의 정액은 수정(受精) 가능성의 증거물이기에 더 생산적이라고 간주된다. 그

7)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 『외비우스 떠로서 몸』, 여이연, 2001, p. 26 참조.

8) 앞의 책, pp. 25, 371 참조.

9) 강선미, 「여성의 몸, 월경에 대한 점성학적 은유」,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제16호, 2001, p. 215 참조.

래서 월경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자궁이 우는 것”이라는 비유까지 등장한다.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인식하기 쉽다.¹⁰⁾

공선옥의 소설 「몸을 위하여」¹¹⁾에서 여주인공 난주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여성의 몸’이 된다. 열세 살에 월경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더 많이 더럽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것 그것이 멘스였다”는 난주의 말에 드러나듯이 여성에게 월경은 더러움이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원죄처럼 인식된다. 월경이란 진정한 여성이 되어가는 자랑스러운 징표가 아니라 남성과 ‘다른’ 몸이 되어가는 기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월경과 더불어 시작되는 여성 호르몬의 발달로 인해 굴곡 있게 된 몸은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될 뿐이고, 임신이 가능해진 몸은 재생산을 위한 기체가 될 뿐이다.

이런 ‘더러운 몸’을 지녔기에 난주의 인생은 수난의 연속이다. 여학교 때에 세 명의 남성으로부터 윤간을 당한 후부터 그녀는 같이 잔 남자와 언제나 헤어진다. 그때마다 난주는 “첫 멘스의 참담함”을 떠올린다. 그리고 같이 자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러운 몸을 지녔기 때문에 더럽게 살 수밖에 없고, 그토록 더러운 몸을 더욱 더럽혔기 때문에 더욱더 비극적인 여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주는 거듭되는 경험 속에서 차차 그런 ‘더러움’을 오히려 삶의 용기와 연결시킨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거침없듯이 멘스 피도 지 마 음껏 쏟아지게 내버려두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움츠러들게 했던 몸을 다시 인식하려고 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난주가 애인과의 이별로 인한 허전함 때문에 시도했던 낯선 남자와의 성교를 거부하는 것도 자신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10) 케티 콘보이 외, 조애리 외 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p. 45 참조.

11) 공선옥,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비평사, 1996.

하기 때문이다. 거절당한 낯선 남자가 욕을 하고 떠난 후 혼자 남은 난주는 다리를 한껏 벌린다. 그리고 자신의 자궁 속으로 비와 바람과 산비둘기 울음 소리를 스며들게 한다. 이때 그녀의 몸으로 들어온 비와 바람과 산비둘기 울음 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피가 되어 그녀의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 자신의 정당한 가치를 되찾은 더러운 몸이 더럽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여기서 작가는 여성의 몸도 남성의 몸처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설을 통해 볼 때 확실히 여성은 월경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한다. 여성에게 있어 월경이 시작된다는 것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여성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성적인 쾌락이나 성숙이 아니라 상처나 손상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몸 밖으로 나온 분비물이자 배설물이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생각되는 것, 그래서 부끄러움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월경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이고도 심리적인 억압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다. 여성에게 있어서 월경이란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내해야 할 ‘주홍 글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폐경기에 들어선 늙은 노파의 몸은 여성으로서 폐기 처분되었다는 의미이기에 흔히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된다.¹²⁾ 이 소설 속에서도 정신 이상인 난주의 할머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면서 방에 갇혀 있다. 그 방에 큰아버지는 여름인데도 군불을 땀다. 언제나 아랫도리가 습했던 할머니는 그래서인지 큰어머니가 입혀준 치마를 벗어던진다. 어렸던 난주는 그런 할머니를 큰아버지가 불에 데워 죽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게까지 그리고 아무 쓸모 없이 분비되는 여성의 체액은 생식력과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증거이기에 남성들에게는 더 혐오스럽게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12)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II: 르네상스』, 까치, 1986, p. 26 참조.

그러나 월경이란 용어 자체가 여성의 몸을 ‘달’에 은유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여성의 몸과도 연결된다. 여성들의 몸은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마치 달 모양의 변화처럼 자생과 자립, 재생을 의미하게 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난주가 마치 제의를 치르듯이 자신의 몸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듯이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것이기까지 하다. 때문에 월경하는 여성만이 변화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다. 어떤 몸에서 다른 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에서 나온 월경혈 속에는 영적이고 치유적인 힘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힘으로 월경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한계나 고통을 월경(越境)할 수 있게 된다.¹³⁾ 그리고 이것이 오이디푸스적인 깨닫고 고상한 몸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크리스테바가 ‘어브젝션 abjection’¹⁴⁾ 이론에서 강조하는 ‘폭력적이고 어두운 저항,’ 즉 더러운 것의 자유로움과 전복성파도 연결될 수 있다.

3. 훼손된 몸, 해체(海體)의 기호

여성의 몸이 월경을 할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기

13) 강선미(2001), p. 231 참조.

14) ‘어브젝션’은 흔히 ‘비천함’으로 번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눈물, 침, 땀, 오줌, 토사물, 질 분비물 등을 칭하는 것이다.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어브젝션은 모성적인 것, 코라, 기호계와 함께 상징계적 주체, 초월적 주체에 의해 억압당한다. 그래서 더욱더 여성적인 것과 쉽게 연결되면서 금지된 욕망이 일어나는 원형적 모성의 비객관성이나 매력과 증오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과거에는 주체의 일부였지만 주체의 통일된 경계를 세우기 위해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 주체 안에 존재하는 친숙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주체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이방적인 것, 자아 분열, 쪼개짐, 갈라짐을 통해 자아와 타자 사이의 공간적 경계를 희미하게 흐려놓는 것이 바로 어브젝션이다. Julia Kristeva, *Power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Roudiez, New York: Columbia U. P., 1982; 고갑희, 「시적 언어의 혁명과 사랑의 정신 분석 — 줄리아 크리스테바」,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pp. 202~14 참조.

와 자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이 성기와 자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의 피부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즉 인어공주 이야기에 나타나듯이 하나의 다리만 지녔던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 얻은 것이 바로 두 개의 다리이다. 하나였던 다리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가 갈라져야 한다. 이처럼 ‘갈라진 피부 fissured flesh’ 사이에 생긴 성기와 자궁으로 인해 인어공주는 비로소 성교 가능한 여성이 된다. 이런 허스토리 Herstory 때문인지 여성들은 자주 자신의 몸이 훼손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 남성에 의해 침범당하고 점령당한 공동(空洞)처럼 자신의 몸의 하부를 느끼는 것이다.¹⁵⁾

인간의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서로 껴안아도 합쳐질 수 없는 분리의 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피부는 부드럽지만 견고한 벽이다. 그런데 이처럼 폐쇄적이고 고립된 피부가 성교를 통해서 열려지는 피부로 변한다. 이때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접촉을 더 많이 당하면서도 남성들을 만질 수 있는 자유는 훨씬 제한된다. 특히 성교를 통한 피부의 상실은 여성들의 몸이 모든 사람의 공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유용한 수단이 된다. 몸의 안과 밖을 구분시키면서 몸 밖의 침투로부터 몸 안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피부이다. 그러나 강요된 접촉은 피부를 피부 같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원하지 않는 성교는 여성들의 피부를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를 상실하게 하는 피부는 여성의 억압을 나타내는 젠더 공간이 된다.¹⁶⁾

권지예의 소설 「뱀장어 스투」¹⁷⁾는 여성의 피부가 겪는 이런 훼손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 제목은 피카소가 자신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자클린을 위해 그린 그림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작가는 뱀장어 스투와 동위태지만 좀더 일상적이고 생활화된 ‘삼계탕’을 끌어와 여성의 몸에 대한 기호로 삼

15) 안드레아 도킨, 홍영의 역,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문학관, 2000, pp. 126~52 참조.

16) 앞의 책, pp. 220~25 참조.

17) 권지예 외, 『뱀장어 스투: 2002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2.

는다. 즉 뱀장어 스투의 한국적 버전이 바로 삼계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의 몸이 그 형체 혹은 본질을 잃어버려야 만들어질 수 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고체가 아닌 액체를 지향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뱀장어와 닭이 '해체(解體)'되어서 국물이 중심이 되는 '해체(海體)'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형태 파괴는 곧 흡수나 합일을 통한 화해와 재생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다'와 같은 여성의 몸과 연결될 수 있다.

이 소설 속 아내의 몸에는 두 개의 흉터가 있다. 아랫배에 있는 철사줄 모양의 것과 오른손목에 있는 자벌레 모양의 것이 그것이다. 아랫배의 흉터는 제왕 절개로 출산을 한 수술 자국이고, 손목의 흉터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낳자마자 외국으로 입양시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일으킨 자살 미수의 흔적이다. 지금의 남편은 에고이스트였던 옛 애인과는 다르게 아내의 이런 상처를 정성스럽게 훑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파리에 살고 있는 아내는 몇 년에 한 번씩 서울에 나올 때마다 옛 애인을 만나 격렬한 섹스를 나눈다.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오면서 아내는 이번에는 남남처럼 살았던 남편과 드디어 헤어지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옛 애인이 자신의 자유도 구속받기 싫어함을 확인하고는 다시 파리의 남편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아내를 위해 남편은 삼계탕을 끓여주려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성적인 것과 연관된다. 두 다리를 한껏 가슴에 추켜올린 채 누워 있는 닭의 모습은 곧 여성의 몸이나 성기의 은유이고, 그 속에 채워 넣어질 대추나 인삼 뿌리는 남성 성기의 은유이다. 하지만 아내의 성기는 남편의 성기를 받아들여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결핍감을 느낀다. 이런 아내의 몸은 “어린 날 해변에서 파놓은 두꺼비집”이나 “언젠가 허물어질 위태로운 검은 구멍”으로 비유된다. 그래서 속의 구멍을 넓히느라 남성들은 손을 넣어 모래를 파내면서 속을 비우려 하지만, 그 찰나 여성의 몸은 무너져내린다는 것이다. 시공간적으로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의 몸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서는 자신을 좀더 오랫동안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남성의 '정자(精子)'는 '정자(亭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문이 따로 없어서 항상 열려 있고, 그러기에 열쇠나 자물쇠가 필요 없는 공간이 바로 정자이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내가 원했던 것은 '튼튼한 감옥' 즉 '꼭 차 있는 하부'이다. 갇히고 싶은데 벽이 없다. 그러므로 문도 없다. 그러니 여성의 몸은 언제나 텅 비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처럼 '훼손된 몸'으로라도 남편에게 다시 돌아왔듯이,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삼계탕을 대접받듯이 아내는 인생이란 자신의 몸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행위임을 인정하게 된다. "살아서 찢어먹이는 것들을 모두 스투 냄비에 안치고 서서히 고아내는 일, 살의나 열정보다는 평화로움에 길 들여지는 일"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다. 세지 않은 불로 조용하고 은근하게 뱀장어(뱀)의 몸부림이나 걱정을 해체시켜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음식 기호가 바로 뱀장어 스투나 삼계탕이다. 해체 deconstruction가 파괴 destruction를 통해 새로운 것을 구성 construction하기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는 음식들인 것이다.¹⁸⁾

이때의 여성의 몸은 그런 해체(海體)를 지향하는 해체(解體)의 공간이다. 마치 '환상사지(幻想四肢)phantom limb'를 앓고 있는 환자처럼 여성의 몸은 환부가 없어도 통증을 느낀다.¹⁹⁾ 이런 환상지통(幻想肢痛)은 여성의 몸이 훼손된 것임을 알려주는 가시적 기호이자 심인성 질병의 징후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완전한 몸에 대한 향수나 애도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워주는 기호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여성의 몸은 피부와 자궁의 상실이나 침범에서 오는 상처를 '환상 페니스'의 일종으로 보는 프로이트 식 해석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은 페니스를 원해서가 아니라 페니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18) 정화열(1999), p. 266 참조.

19) 엘리자베스 그로츠(2001), pp. 8~20 참조.

것이기 때문이다. 자궁을 뜻하는 희랍어 히스테라hystera에 어원을 두는 히스테리hysteria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궁 적출술을 시도해야 한다는 믿음도 바로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와 억압을 나타낸다.²⁰⁾ 여성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자궁을 떼어내도 여성들의 히스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 덧붙여진 몸, 이중의 기호

흔히 여성의 성기는 두 겹이면서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여 여성의 성기는 그 구조와 의미에 있어서 어떤 논리나 일관성을 지니지 않는 모순과 합일, 복수성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²¹⁾ 이러한 여성의 성기를 닮은 여성의 입술 또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하나 속의 둘’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²²⁾ 그리고 입술(입)은 얼굴 부분에서는 이마, 눈, 코에 대응하여 하부 공간을 나타내는 기호에 해당하면서 성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관상학적 기호 체계에서도 성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성과 반대되는 관능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나가 아닌 둘’ ‘하나 속의 둘’ ‘하나이면서 둘’인 입술은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분법적 분리가 지니는 억압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맨입술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연지를 바른 여성들의 입술이 지니는 특성은 여성의 복합적이고도 다중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연지 바른 입술은 여성의 고유성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지니는

20) 케티 콘보이 외(2001), p. 111 참조.

21)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pp. 29~44 참조.

22) 박정오, 「새로운 상징 질서를 찾아서 — 뤼스 이리가라이」,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0), pp. 189~90 참조.

가변성의 진폭을 나타내기엔 적절한 젠더 공간이 된다.

이런 연지 바른 여성의 입술은 이성(異性)인 남성들의 맨입술과 비교될 때와 동성(同性)인 여성들의 맨입술과 비교될 때 그 의미가 다르다. 즉 연지 바른 입술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표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기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입술의 충위에서 생각할 때 남성들은 연지를 바르지 않은 맨입술의 '여성'들에 해당하면서 연지 바른 입술의 여성과 대립되고, 연지 바른 입술을 지닌 여성은 여성들 내에서도 연지를 바르지 않은 맨입술의 여성들과 대립된다.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정립된 이분법에 따르면, 여성은 다음의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정숙한 여성, 가정 주부, 애를 많이 낳는 여성, 좋은 살림꾼으로서의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창녀,' 즉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이다. '어머니'는 감싸주고 이해해주며 순종적인 여성으로서 더없이 아름답지만 굴종과 무기력의 상징인 개념이다. 반면 '창녀'는 매력적이고 자유로우며 유혹하는 여성으로서 한 번도 아름답다고 취급된 적이 없지만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의 개념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는 예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로, 창녀의 경우는 모든 죄악의 근원인 '이브'로 대표된다.²³⁾

그런데 본래 여성의 두 입술이 하나였던 것처럼 여성들은 마리아적인 특성과 이브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남성 중심적인 가치 평가에 의해 마리아와 이브는 '하나 속의 둘'이 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어 대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EVA(에바=이브)와 AVE(아베 마리아)는 문자의 철자법이 서로 전도된 것이다. 즉 AVE로 시작되는 천사의 이미지와 EVA의 죄 깊은 이름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²⁴⁾ 때문에 이

23) 이재선, 「여성의 양면성과 요부형 인간」, 『한국 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pp. 374~75 참조.

24) 노르마 부르너, 메리 D. 개러드, 호송희 역, 『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 동문선, 1994, p. 147 참조.

런 두 여성성 사이의 분리와 갈등을 '입술'의 이중성을 통해 고찰해볼 수 있다.

은희경의 소설 「먼지 속의 나비」²⁵⁾는 흔히 '걸레'로 지칭되는 여성에 관한 소설이다.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면서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 여성의 기호가 '걸레'이다. 창녀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이브적인 속성을 대변하면서 연지 바른 입술로 가시화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 선희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유기고가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실력도 섹스 잠언집을 내려고 할 정도로 성적인 경험이 풍부하다는 무성한 "뒷소문" 때문에 빛을 잃는다. 그런데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남성인 '나'는 선희의 매력에 이끌려 '감히' 그녀와 사귀지만 심한 갈등을 겪는다.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우선 공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암사마귀"처럼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더욱 심하게 공격하고 비난한다. 이때 여성의 몸은 '이빨 달린 질'로 기호화된다. 질에 이빨이 첨가됨으로써 동물적이고 야수적인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거세 콤플렉스를 일으키게 하는 메두사 같은 여성보다 더 두려운 대상은 없다.²⁶⁾ 메두사처럼 머리가 많이 달린 괴물은 곧 똑똑한 여성이다. 그런 여성을 똑바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승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간접적인 도구(거울 같은 방패)로 처치해야 한다. 이때의 메두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없애야 할 괴물로 취급받는 여성의 기호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희의 외모나 성 관념이 이런 평판과는 차이가 난다는 데에 있다. 선희의 외모는 귀염성 있는 흔한 얼굴이고 젓가슴도 작다. 오히려 수수한 편이기에 유혹적이거나 성적이지 않다. 이런 평범한 외모에

25) 은희경, 「타인에게 말걸기」, 문학동네, 1996.

26)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p. 219 참조.

서 그나마 특징을 찾자면 선이 섬세하고 ‘비너스 석상’처럼 단아한 입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선희는 외모적으로 청순하고 중성적이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남성들은 그런 여성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독하고 오해한다. 즉 성적인 매력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그녀의 입술에도 일부러 빨간 연지를 발라주는 것이 그녀 주변의 남성들이다.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에 의해 ‘연지 발린 입술’이 여성들 스스로 ‘연지 바른 입술’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에는 마리아 속의 이브, 이브 속의 마리아를 원하는 남성들의 이중성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²⁷⁾

실제로 선희가 원하는 것은 성적인 ‘방종’이 아니라 ‘자유’이다. 그녀는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안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섹스를 한다. 섹스에서 느끼는 강박과 억압을 극복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하다면 누구나 섹스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섹스”이다. ‘나’와의 섹스에서 그녀는 의외로 수줍어한다. 하지만 ‘나’가 여성의 몸을 소유한 뒤의 정복욕을 보이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한다. ‘나’가 이런 선희에게서 더러운 세상의 관습을 의미하는 ‘먼지’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는 ‘나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그녀가 지닌 이런 저항과 부정 정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삶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틀을 만든 세상이 잘못이다”라는 선희의 말이 그녀가 처한 여성적 현실을 환기시킨다.

결국 은희경의 소설은 의무·희생·책임을 강요당하는 마리아적인 여성과 권리·자유·사랑을 추구하는 이브적인 여성 사이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문제삼는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연지 발린 입술’이나 ‘이빨 달린

27) “누군지 몰라도 개 데려가면 밤마다 선서 외친 다음 자리를 깔아야 할 거야. 하긴 그런 애들이 대개 밤에는 또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지만 말야” “원래 똑똑한 여자들은 내용도 잘 떨지만 밝히기도 되게 밝힌다더라”는 이 소설 속 남성들의 말이 여성에 대한 이런 이중적 잣대를 그대로 보여준다.

질'이라는 여성의 젠더 공간을 통해서 형상화한다. 즉 이처럼 연지나 이빨이 첨가된 여성의 몸은 마리아적 여성과 이브적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여성관이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마리아적인 여성은 천사·성녀·아내의 축으로 연결되면서 순종·의무·희생·순수성의 의미를 형성한다. 반면 이브적인 여성은 마녀·악녀·애인의 축으로 연결되면서 반항·권리·독립·관능성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여성의 분리가 사실은 교묘한 여성 억압의 기제임이 합일성·모순성·이중성을 담보했던 입술이나 여성 성기가 분리성·일관성·단일성을 의미하는 입술로 변화되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가시화된다. 여성은 마리아이기도 하고 이브이기도 한 존재이지 마리아 아니면 이브여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²⁸⁾

5. 바뀌는 몸, 배신(倍身)의 기호

흔히 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²⁹⁾에서는 '남성=문명=자본=소비' '여성=자연=생명=생산'의 의미로 성차를 파악한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명이 이룩한 서구의 물질 문명이나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자연에 가까운 여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성과 자연은 동일한 '몸의 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은 남성에게, 땅은 여성에게 비유된다. 그래서 땅의 생산성이 여성의 생산성과 연결되는데, 이런 여성과 땅이 메마르고 고갈

28)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pp. 123~24 참조.

29) 에코페미니즘이란 용어는 프랑수아 드 본의 『여성 해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1994)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녀는 자연 파괴와 여성 억압적 남성 중심 사회를 연결지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두 가지는 인구 과잉과 지구 자원의 파괴이고, 이는 남성 중심적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문순홍,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제6호, 1995, p. 17 참조.

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과의 분리가 일어났음을 강조한다.³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Gaia에 비유되는 지구는 곧 여성이고, 병든 가이아는 바로 병든 여성의 현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을 인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여성을 남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한다.³¹⁾ 지금까지 지속된 ‘문명-진보-발전’ 중심의 남성적 사고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은 풍부해졌을지 모르지만 자연에 더 가까운 여성의 희생과 훼손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³²⁾

이처럼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상호 연관적·탈중심적·반위계적·비폭력적 문화를 통해 가부장제를 무장 해제하려고 하듯이 여성 작가들도 그동안 억압받는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허약적이고 관용적인 여성성을 강조한다.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고 독립성과 독자성, 분열과 분리를 강조했던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여성다운 시각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을 닮아 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전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폄하되었던 상호 의존적이고 비폭력적인 여성들의 공존 윤리를 재전설하자는 것이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이다.³³⁾ 때문에 자연을 닮으려는 여성들은 초월transcendence이 아닌 내재immanence의 원리를 중시하거나 모성성, 기호계나 전 오이디푸스적인 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부장제의 법과 문화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랑·베쁨·부드러움·따뜻함·동정심·애정·연민 등의 감정이 다시 귀환하게 된다.³⁴⁾

30) 고갑희,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생태학과 생태학적 페미니즘」, 『외국문학』, 1995년 여름호, p. 97 참조.

31) 정화열, 「생태 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 1996년 7·8월호, p. 16; 가이아(佳珥我), 「새로운 문명의 이름 에코페미니즘」, 『이프』, 1997년 가을호, p. 258 참조.

32)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pp. 347~413 참조.

33)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pp. 150~68 참조.

34) 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철학과현실사, 1994; 낸시 초도로우, 「여성의 성장과 모녀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역, 『여성사회철학』,

이에 어울리는 몸을 갖기 위해 여성들은 변신을 꿈꾼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원망(願望)을 몽고반점처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특히 '지금 이곳'의 현실이 부정적이고 억압적일 때 이런 원망이 강화되면서 변화·변형·탈출의 욕망은 커지게 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되는 변신을 통해서 폐색(閉塞)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³⁵⁾ 이런 이유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존재론적 변신의 욕망이 더욱 간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현실에는 실존적인 결핍감이나 사회적인 상황의 억압 이외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요소가 더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변신을 통해 현재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취함으로써 존재론적인 전환을 이루려는 꿈을 꾸게 된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몸은 '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의 몸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몸을 '땃'으로 삼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몸이 아닌 다른 몸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변신이다. 이런 변신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영토를 찾으려는 행위를 시작한다. 일상성이나 무력감을 극복하면서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여성들의 욕망이 변신을 낳는 것이다.³⁶⁾

한강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³⁷⁾에서 아내의 몸이 나무가 되는 것도 이런 변신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가 몸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시 속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살 수 없는 민감한 몸을 소유한 것이 바로 여성이다. 그래서 소설 속의 아내는 온 몸에 피멍이 생긴다. 이 피멍은 연푸른 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변하면서 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등을 참고할 것.

35) 이재선, 「변신의 논리」, 『우리 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p. 65 참조.

36) 김미현, 「존재론적 변신과 초월의 수사학」, 『여성 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pp. 174~75 참조.

37) 한강, 「내 여자의 열매」, 창작과비평사, 1997.

내의 몸을 나무처럼 만든다. 이와 걸맞게 아내는 자꾸 옷을 벗고 알몸으로 햇볕을 쬔고 싶어하거나 물만 많이 먹으려 한다. 그러다가 급기야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앞에 아내는 베란다에서 나무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몸은 진초록색이었다. 푸르스름하던 얼굴은 상록 활엽수의 잎처럼 반들반들했다. 시래기 같던 머리카락에는 싱그러운 들풀 줄기의 윤기가 흘렀다.” 이렇게 변한 아내의 몸에 물을 주면서 남편은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아내의 변신 혹은 변성(變性)은 원래 자신의 몸을 버리고 싶은 배신(背身)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결혼 전에 자신의 ‘나쁜 피’를 갈아 치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을 떠나려 했던 아내, 하지만 결혼 후에 인구 70만이 모여 사는 도시 속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질식할 것만 같았던 아내, 문명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던 아내였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라도 바꾼 것이다. 아내의 몸이 치유되는 길은 그녀 자신이 나무가 되어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처럼 자라서 벗어날 수 없었던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정착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라는 아내의 소망은 바로 탈주나 유목을 추구하는 탈근대인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의 몸은 비록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다갈색으로 그 색깔이 변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움큼의 연두색 열매를 토해낸다. 이 열매로 인해 아내의 몸은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고 자랄 것이다. ‘두 발 달린 동물’에서 ‘뿌리 달린 식물’로 변한 여성의 몸만이 지닐 수 있는 재생력이나 생명력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의 몸이 변성과 생성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로부터의 탈주가 가능할 때 그 의미나 가치도 반전될 수 있다. 이 소설에 나타나듯이 식물이 된 여성의 몸은 한곳에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있다. 자라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다른 것이 되고 또 다른 것이 됨으로써 자신이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은 존재 being가 아닌 생성 becoming의 차원에서 관찰해

야 한다.³⁸⁾ 들뢰즈와 가타리 식으로 말해서 유목민적인 자유는 리좀 rhizome적인 몸을 지녔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좀처럼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 그래야 어디든 집으로 삼으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내의 변신(變身)과 배신(背身)이 알려주는 의미이다. 이처럼 한곳에 고정된 몸이 아니라 언제나 움직이고 이동 중인 몸은 여성의 자아를 확장시켜준다. 그래서 마치 몸이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된다. 바꾼 몸을 통해 배신(倍身)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6. 괴물의 기호학, 부/재(不/在)의 공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몸은 대개 더럽고(공선옥) 훼손되고(권지예) 덧붙여지고(은희경) 바뀌는(한강)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기에 기형적인 괴물로 취급된다.⁴⁰⁾ 오염, 박탈, 첨가, 전위가 일어난 몸은 상쾌를 벗어난 것이며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식 과정에서 모든 일이 표준에 따라 진행된다면 남자 아이가 생기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거나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만 여자 아이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된다면 여성은 괴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⁴¹⁾

그런데 여성을 이런 괴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남성의 시선이다. 기형적인 여성은 여성의 몸이 남성의 시선에 의해 늘 보이는 대상으로만 존재했

38) 박미선, 「로지 브라이도티의 존재론적 차이의 정치학과 유목적 페미니즘」, 『여/성이론』 제 5호, 2001년 겨울호, p. 181 참조.

39) 이진경,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2002, pp. 108~20 참조.

40)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pp. 404~09 참조.

41) 케티 콘보이 외(2001), pp. 82~84 참조.

기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남성은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여성을 본다. 남성은 여성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래서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못한다. 이럴 때 여성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며, 보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⁴²⁾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다성적(多性的)이다. 이리가라이가 비유하듯이 여성의 성기는 늘 마주 붙어 있는 두 개의 입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은 이미 서로를 애무하고 있는 둘, 하나(들)로 분리될 수 없는 둘이기에 일원론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다양하지만 분리될 수 없고, 복수적이지만 자율적인 것이다.⁴³⁾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몸을 '뢰비우스의 띠'에 비유하기도 한다. 옆으로 눌린 8자 모양의 뱀비우스 띠처럼 안과 밖,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해체된다는 것이다.⁴⁴⁾ 이로써 여성의 몸은 영토화, 양극화, 이분화를 거부하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정적이고 평면적인 도형이 아니라 동적이고 입체적인 도형이 된다. 움직이고, 변하고, 이어져야 뱀비우스의 띠처럼 복합성과 유동성을 지닌 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런 인식이 고유한 여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개방성과 가변성, 유동성으로 인해 여성의 몸을 모호하고 불안정한 관념적 기호에 머무르게 할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이분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에 저항과 해방이라는 긍정적 이데올로기를 부여함으로써 또다시 남성의 몸을 소외시키는 측면도 있다. 월경(越境)하고, 해체(海體)가 되고, 이중(二重)적이 되고, 배신(倍身)이 되는 몸은 그토록 여성들이 거부하고 싫어했던 가부장적인 여성의 몸으로 다시 퇴행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42) 김주현, 「여자들의 몸과 눈」, 한국여성철학회 엮음,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학실사, 2000, pp. 208~10 참조.

43)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공선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pp. 157~58 참조.

44) 엘리자베스 그로츠(2001), p. 14 참조.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이 지닌 모순성과 전환성, 이동성, 창조성은 여성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주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여성의 몸에서만 가능한 성적인 즐거움이나 생산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병통치약으로 격상시키거나 동물적인 본능으로 격하시키는 양극단의 평가를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다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남성의 몸과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 바로 여성의 몸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⁴⁵⁾ 그래서 더 이상 있어도 없는 것, 없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할 것, 그러나 다르게 있는 것, 있을 것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여성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이나 될 수 있기에 여성의 몸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기에 여성의 몸은 비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때문에 여성의 몸은 부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저주이자 축복의 기호에 다름아니다.

참고 문헌

- 가이아(1997), 「새로운 문명의 이름 에코페미니즘」, 『이프』 가을호.
 강선미(2001), 「여성의 몸, 월경에 대한 점성학적 은유」,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제16호.
 고갑희(1995),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생태학과 생태학적 페미니즘」, 『외국문학』 여름호.
 기호학연대(2002),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소명출판.
 김미현(1996),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45) 토머스 라커, 이현정 역, 『섹스의 역사』, 황금가지, 2000, p. 13 참조.

- 김미현(2002), 『여성 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 김옥동(1998),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정자 외(2002), 『몸의 역사와 문학』, 태학사.
- 김해옥(2002), 「여성의 몸—탈주하는 그녀들의 기관 없는 몸 되기」, 『타자비평』 제3호.
- 문순홍(1995),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제5호.
- 박미선(2001), 「로지 브라이도티의 존재론적 차이의 정치학과 유목적 페미니즘」, 『여/성이론』 제5호, 겨울호.
- 이거룡 외(1999),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길사.
- 이재선(1989), 『한국 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 이진경(2002),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 정화열(1996), 「생태학적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 7·8월호.
- 태혜숙(1999), 「몸의 정치, 성차의 윤리—뤼스 이리가라이」, 『여/성이론』 제2호.
- 한국여성철학회 엮음(2000),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2000),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 노르마 부르너, 메리 D. 개러드, 호승희 역(1994), 『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 동문선.
-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역(2000),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200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 미셸 푸코, 이규현 역(1990),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나남.
- 미와 마사시, 서동은 역(1993), 『몸의 철학』, 해와 달.
- 브라이언 터너, 임인숙 역(2002), 『몸과 사회』, 몸과 마음.

안드레아 도킨, 홍영의 역(2000),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문학관.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 · 박종만 역(1986), 『풍속의 역사 II: 르네상스』, 까치.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2001), 『뢰비우스 떠로서 몸』, 여이연.
 정화열 저, 박현모 역(1999), 『몸의 정치』, 민음사.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 · 공선희 역(2000), 『섹슈얼리티』, 한나래.
 피터 브룩스, 이봉지 · 한애경 역(2000),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캐롤 길리건, 하란주 역(1994),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철학과현실사.
 케티 콘보이 외, 조애리 외 역(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토마스 라커, 이현정 옮김(2000), 『섹스의 역사』, 황금가지.
 한국여성연구소 편역(1987), 『여성사회철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헬레나 미키, 김경수 역(1992), 『페미니스트 시학』, 고려원.

Baruch, Elain Hoffman(1991), "The Female Body and the Male Mind,"
Woman, Love, Power, New York U. P.
 Kristeva, Julia(1982), *Power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Roudiez, New York: Columbia U. P.

The Dialectic of Eve's Body

—Woman's Body in Korean Feminist Novel

Kim Mi-Hyun

Generally, women who are connected to 'body' have been belittled by men who are related to 'mind.' Moreover, the woman's natural body has been regarded as irrational and uncivilized. Especially because of the absence of penis the woman's body has gradually been degraded as a body of deficiency and deprivation. In this state, the woman's body can only exist as a alibi that outweighs the importance of the man's body. Therefore, to reconsider all these prejudice against the woman's body, four feminist novels are analyzed in this study.

In the novel, 'For the Body,' Gong Sun-Ok mainly describes about the process of how the woman's body becomes and obscene and contemptible subject through a discourse about menstruation. Gwon Jee-Ae talks about the lost of woman's identity through the destruction of body in her novel, 'Eel Stew.' Likewise, in Eun Hee-Kyung's novel, 'The Butterfly in the Dust,' the image of a woman that can be bisected into 'Maria' and 'Eve,' is being criticized on the premise of isotopy between the virgina and the lips. Lastly, Han Kang relates the feminist

ethics, care and thoughtfulness, with nature in the eco-feminist view in her novel, 'The Seed of My Wife.'

Taking these into consideration, the woman's body can easily be treated as a monster. However, this is merely a distortion from the man's view. Like Möbius strip, the woman's body is multiplex, dimensional and complex. It can also be a productive body, which can convert a bad situation into a good one in the sense that the woman's body refuses the idea of being fixed and unified. Therefore, the woman's body should be perceived as a sign of 'becoming' rather than 'being.'

열쇳어: 한국 여성소설 Korean feminist fiction, 여성의 몸 woman's body, 월경 menstruations, 자궁 uterus, 입술 lips, 자연(에코페미니즘) nature(eco-feminism).